

청소년의 외모관련행동과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연구

이 명 희

성신여자대학교 의류학과

A Study of Appearance Behavior and Lifestyle of Adolescents

Myoung-Hee Lee

Dept. of Clothing & Textiles, Sungshin Women's University
(2003. 5. 1. 접수)

Abstract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classify the contents of lifestyle of adolescent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between lifestyles and appearance behavior, and to examine how appearance behavior was influenced by lifestyles and demographic variables of male and female adolescents. The method of the study was survey research by using questionnaires. Subjects were 414 high school students in Seoul: 176 were males and 238 females. Five dimensions of lifestyles were derived by factor analysis: 'digital orientation', 'positive activity', 'achievement orientation', 'material orientation', and 'frugality'. Digital orientation had, in case of the male, a positive relation with body-modification need, a positive one with appearance interest in female. Positive activity had positive relations with appearance interest and body satisfaction in both male and female. Appearance interest, weight interest, and body-modification need levels were significantly higher for female than for male, whereas body satisfaction were higher for male than for female. Appearance interest of male was influenced by positive activities and social stratification. Appearance interest of female was influenced by material orientation and positive activity. Body-modification need of male was influenced by digital orientation and frugality(-), that of female only influenced by material orientation. Fashion and brand preference of male was influenced by material orientation, frugality(-), and social stratification. In case of the female, fashion was influenced by positive activity, material orientation and frugality(-), brand preference influenced by material orientation and positive activity.

Key words: adolescents, appearance, clothing, body, lifestyle; 청소년, 외모, 의복, 신체, 라이프스타일

I. 서 론

청소년기는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인 측면에서 발달과 변화를 가져오는 시기로 과도기적 시기라고 불리어진다. 오늘날 우리 나라의 청소년들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가계소득 수준이 높아져 물질의 풍요

로움 속에서 성장했으며, 자녀수 감소로 인해 가족구성원으로서의 비중이 높아져, 그들의 생활양식, 소비문화, 외모관심 등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게 되었다.

청소년기는 사회적 인정의 원인으로 추상적인 견해보다는 외모, 의복, 소유물 등의 구체적인 항목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므로(Ryan, 1966) 외모의 매력 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들의 외모관심에는 자기 존재 표현, 성인 모방, 성적매력 의식, 친구와의 동료 의식 등의 심리적 배경이 있다(전정재, 1998). 즉 청

이 논문은 2001년도 이세웅박사 학술진흥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된 것임.

소년들은 어른이 되어 가는 자신을 확인 받고 싶어하는 과정에서 남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 한편, 성적 발달과 함께 외모에 큰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실제로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인기 연예인들의 복장과 헤어스타일의 모방, 유명브랜드의 패션제품 구입, 다이어트 등의 행동을 통해 그들의 외모향상에 대한 욕구를 강하게 표현하는 실정이다.

청소년의 외모에 대한 관심이 생활의 한 영역이 될 때 그들의 신체 및 의복에 대한 태도는 라이프스타일에 영향받게 될 것이다. 라이프스타일은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모든 양식을 뜻하며, 시대에 따라 변화한다. 1980년대 이후 라이프스타일과 의복 관련 연구가 다수 진행되어 의복시장 세분화, 상표선호도, 의복행동 등과의 관련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라이프스타일과 의복 관련 연구는 대부분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그다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의 청소년들은 외모의 멋을 추구하고, 적극적인 소비생활, 인터넷 사용의 증가 등 과거 세대보다 다양한 활동을 나타내므로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세분되는 특성을 보이게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중기에 해당되는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의복 및 신체와 관련된 행동을 알아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라이프스타일과 인구통계적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오늘날 청소년들의 외모 관련행동을 이해하고자 한다. 외모관련행동은 의복의 유행, 멋추구, 유명상표선호도와 함께 신체이미지와 신체수정요구도에 관한 내용을 조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라이프스타일의 차원을 조사하고, 둘째, 청소년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외모관련행동의 차이를 알아보고, 셋째, 청소년의 라이프스타일과 외모관련행동의 관련성을 파악하며, 넷째, 라이프스타일과 인구통계적 변인이 외모관련행동에 동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것이다.

II. 선행연구 고찰

1. 청소년의 라이프스타일

라이프스타일에 대하여 Lazer(1971)는 사회 전체 또는 사회 일부 계층의 차별적이고 특징적인 생활양식이라고 하였고, Engel 외(1990)는 사람들이 생활하

거나 시간과 돈을 소비하는 모든 양식을 뜻하며, 라이프스타일은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요소에 의해 영향 받는다고 하였다.

라이프스타일의 측정도구로서 싸이코그래픽스(psychographics) 기법이 널리 사용되는데 싸이코그래픽스는 활동(activities), 관심(interest), 의견(opinion)을 의미하는 AIO로 나타낸다. (1)활동은 그들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예: 일, 취미, 휴과 등); (2)관심은 그들의 주위환경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예: 가족, 직업, 지역사회 등); (3)의견은 자신과 주위 세계에 대한 생각은 무엇인가(예: 사회적 문제, 정치, 사업)에 대해 측정한다. 따라서 라이프스타일이란 환경적 요인과 내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삶의 방식으로서 개인의 활동, 관심, 의견으로 측정되며, 소득, 학력과 같은 인구통계적 특징이 포함될 수 있다(Plummer, 1974).

강이주(1984)는 청소년의 라이프스타일과 가정환경 변인과의 관련성을 연구하였는데 편의적 물질주의, 가족중심, 독립적 성취, 성적에 대한 집착은 가정의 소득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향락주의는 가정환경 요인에 따른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전근희(1985)의 연구에서는 남녀 고등학생의 생활양식을 편의주의, 초자아주의, 성취동기, 전통주의, 가족중심의 5가지 특징으로 구분하여 의복행동과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편의주의와 성취동기가 높은 남녀 청소년들은 의복의 심미성과 편이성을 중요시하였다. 이혜림(1993)은 남자 고등학생의 라이프스타일을 스포츠 관심, 주거 및 식생활태도, 성취지향, 외모관심, 독서태도, 진학태도 등 9가지로 분류하였으며, 성취지향성이 높을수록 상표인지도가 높다고 하였다. 권미영(1990)은 근로 청소년의 생활양식을 적극적 건전절약형, 개인주의적 미래지향형, 보수적 전통주의형, 소극적 현실비판형, 개방적 소비지향형, 소극적 현실도피형의 6종류로 나누어 소비자행동과의 관계를 연구하였고, 차경순(1995)은 청소년의 생활양식을 상표중시형, 타인의견중시형, 패션추구형, 외향형으로 조사하여 캐주얼 의류의 국내 및 외국상표 선호와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유순옥(1999)은 청소년의 생활양식을 소비문화지향, 가부장적 양식, 여가 및 성취지향, 근검절약의 차원으로 분류하여 소비성향과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라이프스타일은 현대 사회에서 경제성장과 정보사회의 진입으로 인해 더욱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인터넷이라는 사이버 공간의 출현은 생활의 디지털화를 가져오게 하였고, 특히 청소년의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3분의 2 정도는 평일에도 매일 평균 1시간 이상씩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하여, 연예계 정보, 패션 정보, 쇼핑물 정보 등을 검색하는 비중이 높았다(전용민, 2003). 이에 청소년의 라이프스타일에 디지털성향의 특성을 포함하여 연구는 것이 필요시된다.

2. 청소년의 외모관련행동

청소년들의 외모관련행동은 실질적이기보다는 감각지향적이므로 외모의 멋을 추구하며, 아름다운 의복과 패션에 대한 민감한 반응으로 나타난다. 청소년들은 유행을 따라가야만 또래들 사이에서 자신을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하므로, 남들에게 뒤쳐지지 않기 위해 값이 비싸더라도 유행에 맞는 옷이나 패션잡화류를 구입한다. 그러나 이들은 패션에 대한 주관이 뚜렷하지 않아 유행성향을 여과없이 받아들여 모방하는 경우가 많다(이은희, 2000).

선행연구에서 볼 때 청소년들은 용돈이 많거나 가정의 소득이 높고(이유선, 1998; 이은희, 2000), 일반 지위비행 정도가 높을수록 유행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이은실, 이명희, 1999). 또 여자는 남자보다 유행 관심이 높았고, 신체이미지가 긍정적일수록 유행관심도가 높았으며,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은 유행에 대한 관심이 낮았다(송경자, 김재숙, 1999).

그러나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의복의 심미성 및 외모만족도와 정적 관계를 지녀(이광진, 1999; Humphrey et al., 1971)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청소년들은 아름다운 의복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고, 자신의 외모에 대한 만족도도 높았다.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최정희(1991)의 연구에서는 부의 학력이 높을수록 의복디자인 및 유행에 관한 흥미가 높았으며, 장혜연(2001)의 연구에서도 부의 학력과 물질지향성이 높을수록 의복 심미성을 중요시 하였고 고등학생이 대학생보다 심미성을 더 중요시 하였다. 그러나 송기숙(1990)의 연구에서 심미성은 부모의 학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여고생이 여중생보다 심미성을 더 중요시하였다. 따라서 청소년 초기보다 중기에는 아름다운 의복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의 외모관련행동의 또 다른 특징은 과소비와 브랜드제품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캐주얼웨어 구입시 청소년들은 과반수 이상이 최근에 유명상표

의 캐주얼의류를 구입한 경험이 있었고, 구입희망 상표명 중에서는 전체의 절반 정도가 외국 유명상표를 희망하였다. 따라서 청소년의 유명상표 선호는 외국 제품 선호와 맞물린다. 또한 외국상표 의류를 구입한 청소년들은 특정 상표를 더 의식하므로 상점에 가기 전에 구입할 상표를 미리 마음속에 생각해 두는 경향이 높았다(이명희, 2001).

청소년들이 유명상표를 선호하는 이유는 품질보다 디자인이 더 중요한 동기가 되었으며(고순례, 1989, 서영복, 2000), 특히 독특한 스타일이 청소년의 상표 선호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차은정, 1998). 또한 대중스타에 대한 동조성도 청소년의 의류상표선택행동에 매우 큰 영향을 주었으며(김나연, 2000), 부모의 학력, 가정의 소득이나 용돈, 사회계층은 유명상표 선호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이영해, 1988; 고순례, 1989; 정민숙, 1990; 송은영, 2002).

신체는 의복과 함께 외모의 구성 요소로서 작용하며, 청소년들은 외모 가꾸기에 열중하여 연예인의 화장을 모방하고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여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선행연구(이미숙, 2000; Jacobi & Cash, 1994)에서 청소년들은 비교적 마른 체형을 이상적인 신체상으로 선호하였고 자신이 실제보다 뚱뚱하다고 왜곡하여 지각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러한 경향의 원인으로는 미디어의 영향을 들 수 있다. 실제로 청소년들은 물질주의 가치가 높고 영상매체 이용시간이 많을수록 성형관심, 체중관심, 머리손질관심, 화장관심이 모두 높았다(전용민, 2003).

Macgillivray와 Wilson(1997)은 미국의 6, 9, 12학년의 남녀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청년기 후기의 청소년들은 초기 및 중기 청소년보다 신체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청소년들이 연령이 증가할수록 아름다움과 매력성에 대한 문화적 기준을 내면화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성별로 볼 때 대부분의 연구에서 청소년의 자기 외모에 대한 평가는 남자보다 여자가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다(Cash, et al., 1986; 구정화, 1994; 고애란, 김양진, 1996; Macgillivray & Wilson, 1997; Kim & Lee, 1998). 따라서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자신의 신체 중 어떤 부분을 성형하기를 바라는 경향이 더 높게 나타났다(정진봉, 1999). 한국청소년개발원(2000)에서 청소년의 신체적 자아상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 신체만족도는 5점 척도에서 3.09로 보통이라고 할 수 있으나, 여자는 2.96, 남자는 3.23으로 나타나 여자의 신체만족

도가 남자보다 매우 낮았다. 이상적인 외모의 여성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는 날씬한 몸매가 가장 필요하다고 하였고, 이상적인 외모의 남성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는 큰 키가 가장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그 다음 조건으로는 여자의 경우 세련된 옷차림을 들었다. 또한 여고생의 외모관리행동에는 머리손질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용돈지출이 많고 외향적인 성격일수록 머리손질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김정애, 2001). 청소년의 외모만족도는 남녀 모두 사회계층이나 생활수준이 높고 학교성적이 좋을수록 증가하였다(구자명, 이명희, 1994; 한국청소년개발원, 2000).

III. 연구방법

1. 측정도구

본 연구는 조사연구방법으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측정도구는 라이프스타일, 외모관련행동, 인구통계적 변인을 포함하였다. 라이프스타일은 선행연구(김미영, 1989; 차은정, 1998; 유순옥, 1999; 송원영, 이명희, 2001)에서 23개 문항을 택하여 사용하였다. 외모관련행동은 의복과 신체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고, 라이프스타일과 외모관련행동은 5점 Likert 척도에 의하여 측정하였다. 의복에 관한 내용은 선행연구(이혜립, 1993; 차경순, 1995; 유순옥, 1999)를 참조하여 유행, 멋 추구, 유명상표선호에 관한 내용을 각각 3, 3, 4문항씩 택하여 사용하였으며, Cronbach's α 신뢰도 계수를 순서대로 보면 .74, .56, .80이었다. 신체에 관한 내용은 신체이미지와 신체수정요구도를 조사하였다. 신체이미지는 Cash(1990)의 MBSRQ(Multidimensional Body-Self Relations Questionnaire)의 척도 중에서 외모관심, 체중 관심, 신체만족에 관한 내용을 각각 4, 3, 4문항씩 택하였으며, 각 변인의 신뢰도 계수는 .75, .76, .64였다. 신체수정요구도는 선행연구(차진희, 1994; 전경란, 2002)를 참조하여 9개 항목에 대한 요구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신체수정요구도의 신뢰도는 .72였다. 인구통계적 변인은 피험자의 성별, 학교, 연령, 부모의 학력, 사회계층을 조사하였으며, 사회계층은 주관적 평가에 의하여 9단계로 구분하였다.

2. 연구대상, 자료수집 및 자료분석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서울의 남녀 고등학생으

로서 강남 및 강북지역의 고등학교 2학년 학생 414명이었다. 자료수집 기간은 2001년 9~10월이었다. 자료분석은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전산처리 하였다. 통계분석방법은 요인분석, Cronbach's alpha 신뢰도 계수,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분석, χ^2 검증, t 검증, 일원변량분석, Duncan의 다중범위검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본의 분포를 보면 강남과 강북지역 학교의 학생이 각각 51.7%(214명), 48.3%(200명)였고, 성별은 남자가 42.5%(176명), 여자가 57.5%(238명)였다. 아버지 학력은 고졸 이하, 대졸 이상이 각각 41.3%, 58.7%였고, 어머니 학력은 고졸 이하, 대졸 이상이 각각 56.5%, 43.5%였다. 사회계층은 상의 상, 중, 하층이 각각 3.1%, 3.9%, 2.2%, 중의 상, 중, 하층이 각각 30.4%, 48.8%, 7.2%였고, 하의 상, 중, 하층이 각각 2.2%, 1.0%, 1.2%로서 대부분이 중류층으로 분포되었으므로 재분류하였다. 즉 중의 상층 이상을 상류층으로, 중의 중층을 중류층, 하의 상층 이하를 상류층으로 재분류하였으며, 그 결과 상, 중, 하류층이 각각 39.6%, 48.8%, 11.6%의 분포를 나타냈다.

IV. 결과 및 논의

1. 라이프스타일의 요인분석

라이프스타일을 조사한 23 문항에 대하여 주성분분석과 Varimax 회전법에 의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최소 고유치 1 이상의 기준에 의하여 요인과 문항의 내용을 검토하면서 요인에 적합하지 않은 문항을 제외하였다. 그 결과 6개 문항이 제외되었고, <표 1>과 같이 5개 요인의 17개 문항이 선택되었다.

요인 1은 컴퓨터나 인터넷 사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디지털 성향이라 명명하였고, 요인 2는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적극적 활동성이라고 하였다. 요인 3은 성취하려는 욕구, 장래 문제에 대한 확신 등이 포함되어 성취지향성이라고 하였고, 요인 4는 봉급이나 사업가에 대한 관심이 포함되어 물질지향성이라고 하였으며, 요인 5는 절약 및 저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근검절약성이라고 하였다. 모든 문항의 요인부하량은 .49 이상이었으며 요인 5까지의 누적변량은 57.89%였다. 각 요인의 Cronbach's α 신뢰도계수는 요인 1에서 요인 5까지 각각 .71, .70, .61, .65, .57 이었다. 요인 5의 신뢰도

<표 1> 라이프스타일의 요인분석

요인 1. 디지털성향	요인부하량
여가시간은 주로 컴퓨터를 하며 보낸다.	.82
컴퓨터 앞에서 거의 밤을 샌 적이 있다.	.79
뚜렷한 목적이 없어도 인터넷을 향한다.	.78
컴퓨터에서 채팅 같은 것을 통해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움을 느낀다.	.49
고유치=2.22, 전체변량(%)=13.08, 누적변량(%)=13.08, α 신뢰도=.71	
요인 2. 적극적 활동성	요인부하량
나는 친구들의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78
사교적인 성격으로 남과 친하게 지내기를 좋아한다.	.77
나는 모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편이다.	.66
학급회의 등 회의를 할 때 내 생각을 분명히 말하는 편이다.	.52
고유치=2.14, 전체변량(%)=12.59, 누적변량(%)=25.67, α 신뢰도=.70	
요인 3. 성취지향성	요인부하량
나는 계속하여 무엇인가 성취하려는 욕구를 갖고 있다.	.79
마음먹은 일은 꼭 해내려고 한다.	.78
나의 장애문제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다.	.58
고유치=1.97, 전체변량(%)=11.56, 누적변량(%)=37.23, α 신뢰도=.61	
요인 4. 물질지향성	요인부하량
무엇보다도 봉급이 많은 직장이 좋다고 생각한다.	.81
무슨 형태의 일이든 돈을 많이 벌어야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79
성공한 학자보다는 성공한 사업가가 좋다.	.67
고유치=1.81, 전체변량(%)=10.65, 누적변량(%)=47.88, α 신뢰도=.65	
요인 5. 근검절약성	요인부하량
용돈을 절약하려고 근검절을 하지 않을 때도 있다.	.78
용돈을 절약해서 저축을 한다.	.74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잘 사지 않는 편이다.	.57
고유치=1.70, 전체변량(%)=10.01, 누적변량(%)=57.89, α 신뢰도=.57	

가 다소 낮은 편이었으나 전체적인 신뢰도는 만족할 만 편이었다.

본 연구에서 성취지향성, 물질지향성, 근검절약성의 도출은 강이주(1984), 유순옥(1999)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고, 디지털성향과 적극적 활동성 요인의 도출은 송원영, 이명희(2001)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이상에서 결정된 5개 요인에서의 성향은 문항점수를 합하여 문항수로 나눈 값을 사용하였으며, 이 값은 계속되는 자료분석에 사용하였다.

2.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외모관련행동의 차이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외모관련행동의 차이를 t-검증과 일원변량분석으로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표 2>에서 볼 때 외모관심, 체중관심, 신체만족, 신체수정요구는 성별에 따라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 여자는 남자보다 외모관심과 체중관심이 높고, 신체수정요구도가 높았으나 신체만족도는 남자가 더 높았다. 남자가 여자보다 신체만족도가 높았던 것은 선행연구(고애란, 김양진, 1996; 한국청소년개발원, 2000; Kim & Lee, 1998)와 일치하며, 이것은 여자가 남자보다 신체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고, 더 많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이다. 의복의 유행, 멋추구, 유명상표선호도는 성별에 따라 모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의복을 통해 자신의 외모를 낮게 보이게 하려는 태도는 남녀간의 차이가 없는 공통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 의복의 유행, 멋추구, 유명상표선호와 외모관심은 유의적인 차이가 있어, 부모의 학력이 대졸 이상인 경우가 고졸 이하 집단보다 더 높았다. 이것은 장혜연(2001), 최정희(199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아버지의 학력에 따

<표 2>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외모관련행동

(N=4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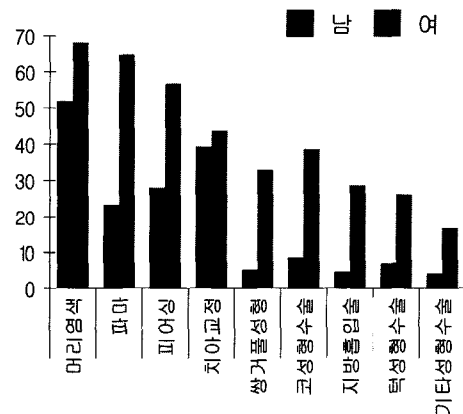
		유행	멋추구	유명상표선호	외모관심	체중관심	신체만족	신체수정요구
성별	남	2.81	3.19	3.38	3.11	2.14	3.07	2.11
	여	2.83	3.23	3.46	3.37	2.94	2.80	2.97
	t	-.25	-.50	-.90	-3.76**	-8.35**	4.06**	-12.78**
아버지 학력	고졸 이하	2.66	3.04	3.20	3.17	2.59	2.82	2.52
	대졸 이상	2.93	3.34	3.59	3.32	2.61	2.98	2.66
	t	-3.35*	-3.64**	-4.67**	-2.13*	-.17	-2.34*	-1.76
어머니 학력	고졸 이하	2.72	3.05	3.24	3.19	2.57	2.86	2.53
	대졸 이상	2.95	3.43	3.67	3.36	2.64	2.98	2.69
	t	-2.76**	-4.55**	-5.26**	-2.50*	-.72	-1.74	-1.99*
사회 계층	하	2.56b	2.97b	2.94c	3.07b	2.56	2.71b	2.38b
	중	2.72b	3.11b	3.38b	3.13b	2.60	2.87ab	2.56ab
	상	3.02a	3.41a	3.63a	3.48a	2.62	3.03a	2.72a
	F	8.67**	8.24**	13.23**	13.40**	.07	4.92**	3.87*

*p<.05, **p<.01, 문자 a, b, c는 Duncan의 다중범위검증

라 신체만족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 신체수정요구도가 유의한 차이가 있어 모두 학력이 높은 집단이 신체만족도와 신체수정요구도가 더 높았다. 사회계층에 따라서는 유행, 멋추구, 유명상표선호, 외모관심, 신체만족, 신체수정요구도의 6개 변인은 유의적인 차이가 있어, 상류층은 중류나 하류층보다 모든 외모관련행동에 대한 수준이 더 높았다. 특히 유명상표선호는 세 집단이 모두 차이를 보여 사회계층이 높을수록 유명상표선호도가 높아지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부모의 학력과 사회계층에 대한 결과는 부모의 학력이 높은 가정의 청소년들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 유행하는 스타일이나 유명상표의 의복을 통하여 외모의 멋을 추구하면서 외모관심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신체만족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이러한 계층에 따른 내용은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구자명, 이명희, 1994; 김양진, 강혜원, 1992; 이영해, 1988).

부가적으로 청소년의 신체수정요구도의 분포를 성별로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성별과 신체수정요구도와의 관계를 χ^2 검정으로 조사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p<.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림 1>에서 볼 때 치아교정과 머리염색은 남녀의 차이가 비교적 적은 편이면서 남자와 여자가 공통적으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머리염색은 남자의 51.7%, 여자의 68.15%가 원하고 있었고, 치아교정은 남자의 39.2%, 여자의 43.7%가 원하고 있었다. 따라서 비교적 많은 남녀 청소년들이 머리염색과 치아교



<그림 1> 신체수정요구의 분포도(단위=%)

정을 통하여 자신의 외모를 개선시키기를 희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50% 이상의 여자 청소년들은 파마(64.7%), 피어싱(56.7%) 등을 하기 원하며, 코성형(38.7%), 쌍꺼풀성형수술(32.8%)을 원하는 정도도 30% 이상이었다. 지방흡입수술을 희망하는 여자 청소년은 28.6%로서 수술의 위험을 생각할 때 적지 않은 여학생들이 지방흡입수술을 원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들이 자신의 외모를 개선시키려 하는 욕구와 함께 날씬한 신체를 희망하는 태도가 매우 적극적임을 의미한다.

3. 라이프스타일과 외모관련행동의 관계

라이프스타일과 외모관련행동의 관련성을 Pearson

의 적률상관관계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디지털성향은 남자의 경우 신체수정요구와 유의한 정적 관계가 있었고, 여자는 외모관심과 정적 관계를 나타내어, 디지털성향이 높을수록 남자는 신체수정요구가 높았고, 여자는 외모관심도가 높았다. 이것은 선행연구(송원영, 이명희, 2001)에서 디지털성향이 높을수록 의복구입 시 디자인과 색을 중요시하였던 점이나 인터넷 사용 시간이 많은 청소년들이 신체관심도가 높았던 것(전용민, 2003)과 유사한 결과였다.

적극적 활동성은 남녀 모두 외모관심 및 신체만족과 $p<.01$ 수준에서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여, 적극적 활동성이 높은 청소년들은 외모관심과 신체만족도가 높았다. 남자의 경우 적극적 활동성은 멋추구와 유의한 정적 관계가 있었고, 여자는 유행 및 유명상표선호와 정적 관계를 나타냈다. 즉 적극적 활동성이 높은 남자는 의복의 멋을 추구하며, 여자는 유행과 유명상표의 선호도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외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여러 친구들과 자주 만나게 됨으로써 더욱 타인을 의식하여 자신의 외모향상에 적극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성취지향성은 남자의 경우 외모관심 및 신체만족과 유의한 정적 관계가 있었고, 여자는 유명상표선호와 정적 관계를 나타내어, 성취지향성이 높을수록 남자는 외모관심과 신체만족도가 높았고, 여자는 유명상표선호도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이혜림(1993)의 연구와 유사하였다.

물질지향성은 남녀 모두 유행, 멋추구, 유명상표선

호와 $p<.01$ 수준에서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여, 물질지향성이 높은 청소년들은 의복의 유행과 멋, 유명상표에 모두 관심이 높았다. 즉 물질지향성이 높은 청소년들을 의복을 통하여 자신의 외모를 돋보이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은 이영해(1998), 장혜연(2000)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여자는 물질지향성이 외모관심, 체중관심, 신체수정요구와 정적 관계를 보여, 물질지향성이 높은 여자 청소년들은 이러한 특성들이 모두 높았다. 따라서 여자 청소년들은 특히 물질지향성이 높을수록 의복이나 신체 등 외모의 모든 면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근검절약성은 남녀 모두 유행 및 멋추구와 부정적인 관계를 보여, 근검절약성이 높은 남녀 청소년들은 의복의 유행이나 멋을 중요시 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근검절약성은 남자의 경우 유명상표선호와 신체수정요구와 부정적인 관계를 보였고 신체만족도와는 정적인 관계를 보여, 근검절약성이 높은 남자 청소년들은 의복의 유명상표나 신체수정에 대한 관심은 낮으면서 신체만족도는 높다고 할 수 있다. 즉 근검절약성이 높은 남학생들을 의복에 대한 관심이나 신체수정에 대한 관심은 낮으면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고 있다고 풀이된다.

이상에서 볼 때 남녀 청소년의 라이프스타일 중에서 적극적 활동성이나 물질지향성이 외모관련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남자는 근검절약성이 외모관련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표 3> 라이프스타일과 외모관련행동의 관계

(N=414)

		유행	멋추구	유명상표선호	외모관심	체중관심	신체만족	신체수정요구
디지털성향	남	-.004	.015	-.021	.020	.070	-.101	.178*
	여	.115	.096	.069	.128*	.110	.032	.093
적극적활동성	남	.132	.236**	.103	.341**	-.031	.388**	.104
	여	.210**	.119	.275**	.232**	.124	.240**	.126
성취지향성	남	-.020	-.043	-.061	.192*	-.068	.411**	-.078
	여	.002	.103	.201**	.124	.094	.059	-.056
물질지향성	남	.197**	.249**	.250**	.140	.076	.067	.045
	여	.246**	.196**	.302**	.242**	.186**	-.050	.279**
근검절약성	남	-.167*	-.195**	-.224**	-.101	-.068	.242**	-.208**
	여	-.159*	-.197**	-.122	-.051	-.067	-.013	-.125

* $p<.05$, ** $p<.01$

<표 4> 외모관련행동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beta계수)

독립변인	유행		멋추구		유명상표선호		외모관심		신체만족		신체수정요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디지털성향	-	-	-	-	-	-	-	-	-	-	.161*	-
적극적활동성	-	.206**	.236**	-	-	.200**	.297**	.203**	.265**	.224**	-	-
성취지향성	-	-	-	-	-.187*	-	-	-	.265**	-	-	-
물질지향성	.172*	.186**	.222**	.160*	.219**	.264**	-	.214**	-	-	-	.265**
근검절약성	-.167*	-.130*	-.150*	-.146*	-.216**	-	-	-	.198**	-	-.181*	-
어머니 학력	.166*	-	.172*	.181**	.193**	.213**	-	-	-	.131*	-	-
사회계층	.173*	-	.185*	-	.209**	-	.176*	-	-	-	-	-
R ²	.142	.118	.245	.096	.215	.190	.148	.103	.264	.070	.069	.070
F	6.96**	9.67**	8.99**	7.65**	11.49**	16.87**	14.73**	12.48**	20.17**	8.20**	6.28**	16.45**

*p<.05, **p<.01

4. 외모관련행동에 대한 관련 변인의 영향력

외모관련행동에 대하여 라이프스타일과 인구통계적 변인이 동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단계적(stepwise) 방법에 의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유행추구의 경우 남학생은 사회계층, 물질지향성, 근검절약성(-), 어머니의 학력 순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개 변인을 통한 설명력은 14.2%였다. 여학생은 유행에 적극적 활동성이 가장 큰 영향을 주었고, 그 다음에 물질지향성, 근검절약성(-)이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3개 변인의 설명력은 11.8%였다. 즉 남녀 모두 물질지향성이 높고, 근검절약성이 낮을수록 유행을 중요시하였고, 남학생은 사회계층과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여학생은 적극적 활동성이 높을수록 유행을 중요시하였다.

멋추구에는 남학생의 경우 적극적 활동성이 가장 큰 영향을 주었고, 그 다음에 물질지향성, 사회계층, 어머니 학력, 근검절약성(-)의 순으로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5개 변인의 설명력은 24.5%였다. 여학생은 어머니 학력, 물질지향성, 근검절약성(-)이 멋추구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그 설명력은 9.6%였다. 즉 남녀 청소년들은 물질지향성과 어머니의 학력이 높으며, 근검절약성이 낮을수록 의복의 멋을 추구하는 정도가 높았으며, 남학생은 적극적 활동성과 사회계층이 높을수록 의복의 멋을 추구하는 정도가 높아졌다.

유명상표선호도에는 남학생은 물질지향성, 근검절

약성(-), 사회계층, 어머니의 학력, 성취지향성의 순으로 영향을 주었으며, 5개 변인을 통한 설명력은 21.5%였다. 여학생은 유명상표선호도에 물질지향성, 어머니의 학력, 적극적 활동성의 순으로 영향을 주었으며, 3개 변인의 설명력은 19.0%였다. 즉 남녀 모두 물질지향성과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유행을 중요시하였고, 남학생은 사회계층이 높으며 근검절약성과 성취지향성이 낮을수록, 여학생은 적극적 활동성이 높을수록 유명상표를 선호하는 정도가 높았다.

외모관심에는 남학생은 적극적 활동성과 사회계층이 영향을 주었으며, 그 설명력은 14.8%였다. 여학생은 외모관심에 물질지향성과 적극적 활동성이 영향을 주었으며, 그 설명력은 10.3%였다. 즉 남녀 모두 적극적 활동성이 높을수록 외모관심이 높아졌고, 또한 남학생은 사회계층이 높을수록, 여학생은 물질지향성이 높을수록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신체만족에 남학생은 적극적 활동성, 성취지향성, 근검절약성이 영향을 주었으며, 3개 변인을 통한 설명력은 26.4%였다. 여학생은 신체만족에 적극적 활동성과 어머니의 학력이 동시에 영향을 주었으며, 설명력은 7.0%였다. 즉 남녀 모두 적극적 활동성이 높을수록 신체만족이 높았고, 남학생은 성취지향성과 근검절약성이 높을수록, 여학생은 어머니 학력이 높을수록 신체만족도가 높아졌다.

신체수정요구도에 남학생은 근검절약성(-)과 디지털성향이 영향을 주었으며, 그 설명력은 6.9%였다. 여학생은 물질지향성이 영향을 주었으며, 설명력은 7.0%였다. 즉 남학생은 근검절약성이 낮고, 디지털성

향이 높을수록, 여학생은 물질지향성이 높을수록 신체수정요구도가 높아졌다.

체중관심은 남자의 경우 라이프스타일과 인구통계적 변인이 의미있는 영향을 주지 않았고, 여자의 경우 물질지향성만이 영향을 주었으며(β 계수=.195), 그 설명력은 3.8%였다. 즉 남녀 청소년의 체중관심은 라이프스타일 및 인구통계적 변인에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V.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라이프스타일의 차이를 조사하고, 라이프스타일과 외모관련행동의 관련성을 알아보며, 라이프스타일과 인구통계적 변인이 외모관련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 있었다. 연구대상자는 서울의 남녀 고등학생 414명으로서 남자가 176명, 여자가 238명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라이프스타일은 요인분석에 의하여 디지털성향, 적극적 활동성, 성취지향성, 물질지향성, 근검절약성의 5개 차원으로 분류되었다.

둘째, 성별에 따른 차이에서 여자는 남자보다 외모관심, 체중관심, 신체수정요구도가 높았으나, 신체만족도는 남자가 여자보다 높았다. 유행, 멋추구, 유명상표선호는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부모의 학력과 사회계층에 따라 유행, 멋추구, 유명상표선호와 외모관심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상류층이 중류층 및 하류층보다 더 높았다. 체중관심은 부모의 학력과 사회계층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셋째, 청소년의 신체수정요구 중 머리염색은 남녀의 차이가 비교적 적은 편이면서 남녀 모두 공통적으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남자의 51.7%, 여자의 68.2%가 머리염색을 원하였고, 치아교정은 남자의 39.2%, 여자의 43.7%가 희망하였다. 그 밖에 50% 이상의 여자 청소년들은 퍼머, 피어싱 등을 하기 원하며, 코 성형, 쌍꺼풀 성형수술을 원하는 정도도 30% 이상이었다. 지방흡입수술을 원하는 여자 청소년은 28.6%였다.

넷째, 디지털성향은 남자의 경우 신체수정요구와 유의한 정적 관계가 있었고, 여자는 외모관심과 정적 관계를 나타내어, 디지털성향이 높을수록 남자는 신체수정요구도가 높았고, 여자는 외모관심도가 높았다. 또한 적극적 활동성은 남녀 모두 외모관심 및 신

체만족과 유의한 정적 관계가 있어, 적극적 활동성이 높은 청소년들은 외모관심과 신체만족도가 높았다.

다섯째, 남자는 유행, 멋추구, 유명상표선호에 물질지향성, 근검절약성(-), 어머니 학력과 사회계층이 동시에 영향을 주었다. 여자의 경우는 유행, 유명상표선호에 적극적 활동성과 물질지향성이 영향을 주었고, 멋추구와 유명상표선호에는 물질지향성과 어머니 학력이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남자의 외모관심에는 적극적 활동성과 사회계층이 동시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고, 여자의 경우에는 물질지향성과 적극적 활동성이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남자의 신체수정요구에는 디지털성향과 근검절약성(-)이 동시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고, 여자의 경우에는 물질지향성만이 영향을 주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비교적 많은 남녀 청소년들이 머리염색과 치아교정 등을 통하여 자신의 외모를 개선시키기를 희망하며, 여학생들은 자신의 외모를 개선시키려 하는 태도가 매우 적극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오늘날의 청소년들이 유행과 멋을 추구하며 유명상표를 선호하는 태도는 남자와 여자가 동일하나, 여자들은 남자보다 자신의 신체에 만족하지 못하며, 체중의 증가에 많은 관심을 지니고 있음을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청소년들의 유행, 멋추구, 유명상표선호가 남녀 동일하게 나타난 것은 외모관련행동을 통한 양성 동등화의 현상이 청소년들에게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과거 세대에 비해 남자 청소년들이 외모관심이 증가하는 현상을 더욱 긍정적으로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여자들이 자신의 신체에 만족하지 못하며, 체중 및 외모개선에 높은 관심이 있었던 것은 예쁜 얼굴과 함께 날씬한 몸매를 추구하는 현대의 이상적인 신체이미지가 많은 여자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남녀 모두 적극적 활동성이 높은 청소년들이 외모관심과 신체만족도가 높았으며, 물질지향성이 높을수록 의복 유행과 멋추구, 유명상표선호도가 높았고 청소년의 근검절약 성향은 멋과 유행추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의 근검절약적인 생활태도가 외모를 통하여 표현되며, 유행을 추구하고 값비싼 상표의 의복을 착용하려는 태도는 사회의 물질주의적인 성향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추론된다. 또한 청소년들의 적극적 활동성이 외모관심 및 신체만족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었던 것은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청

소년들이 타인과의 관계를 의식함으로써 외모개선을 위해 노력하며, 그 결과 자기 신체에 만족하게 되며, 자신의 신체에 만족하는 청소년들이 신체에 대한 자신감을 지님으로 사회생활에 더욱 적극적인 태도를 지니기 때문이라고 본다. 즉 청소년들의 신체나 외모는 적극적인 사회생활에 매우 중요한 영향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긍정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기 외모에 자신감을 지닐 수 있도록 외모개선에 도움을 주는 한편, 현대 사회의 외모지상주의가 청소년들에게 지나친 자극이 되지 않도록 하며, 외모 이외의 능력이나 가치를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감을 갖도록 사회적, 교육적 차원의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라이프스타일을 좀 더 폭 넓고 다양하게 조사하여 외모행동과의 관계를 조사하며, 나아가서 청소년의 라이프스타일이 외모와 관련된 소비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필요시된다.

참고문헌

- 강이주. (1984). *청소년의 생활양식 유형분석: 서울의 고교생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고순례. (1989). *청소년의 유명상표 선호도에 관한 연구: 스포츠화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고애란, 김양진. (1996). 청소년의 의복행동에 대한 자아중심성, 자아의식, 신체만족도의 영향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0(4), 667-681.
- 구자명, 이명희. (1994). 남녀 중학생의 외모만족도와 사회성 및 성취동기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5), 153-163.
- 구정화. (1994). 청소년의 자기평가에 관한 연구: 성별, 학교변인별, 가정변인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19, 95-113.
- 권미영. (1990). *여성노동청소년의 생활양식과 소비자 의식 및 행동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나연. (2000). *청소년 소비자의 동조적 상표선택행동에 관한 연구: 케주얼 의류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미영. (1989). *생활양식유형과 의부평가기준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양진, 강혜원. (1992). 의복 및 신체 만족도와 학업성취도가 사회적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16(2), 207-208.
- 김정애. (2001). *여고생의 신체만족도와 외모관리 행동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서영복. (2000). *청소년 여성의 가장환경이 의류 상표지향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송경자, 김재숙. (1999). 신체이미지, 신체애극 및 자아존중감이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 태도적, 지각적 신체이미지 측정을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7(5), 740-751.
- 송기숙. (1990). *여자중고등학생의 의복행동 요인분석과 인구통계적 변인과의 관련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송원영, 이명희. (2001). 인터넷 쇼핑에서의 의복구매행동과 라이프스타일과의 관계 연구: 인터넷 이용자를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9(4), 602-615.
- 송은영. (2002). *청소년의 자기이미지, 신체이미지와 의복부너 선호 및 의복스타일 선호와의 관계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유순옥. (1999). *청소년 소비자의 생활양식 유형과 소비주의 성향*.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광진. (1999). *여자고등학생들의 자아개념에 관한 의복행동에 따른 연구: 서울과 경기지역의 인문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명희. (2001). 디지털 시대의 청소년과 의생활 문화. *가정문화운동 심포지엄: 디지털시대와 가정문화*. 이화여자대학교 인간생활환경연구소. 33-47.
- 이미숙. (2000). *TV미디어가 청소년의 신체이미지와 의복행동 및 모방행동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영혜. (1988). *청소년의 가장환경이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 의복관심, 상표인지, 의복구매동기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유선. (1998). *남녀 고등학생의 사회적 가치관과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은실, 이명희. (1999). 청소년의 비행 정도와 정보탐색 및 유행물입과의 관계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3(3), 402-413.
- 이은희. (2000). *청소년의 소비문화의 특성과 문제점*. *윌간 소비자*, 218, 24-28.
- 이혜림. (1993). *남자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 및 라이프스타일과 의복태도와의 관계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장혜연. (2001). *대학생과 고등학생의 가치관과 의복행동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전경란. (2002). *여성의 욕구, 자아존중감과 성형 및 의복태도의 관련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전근희. (1985). *고교생의 복식행동과 생활양식유형과의 상관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전용민. (2003). *여자 청소년의 영상매체 이용도, 사회적 가치와 의복 및 신체태도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전정재. (1998). *힘든 침대 어떻게 잘 넘길까?*. 서울: 시공사.

- 정민숙. (1990). 청소년의 상표에 대한 이미지 및 선호도, 충동구매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진봉. (1999). 상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서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차경순. (1995). 라이프스타일의 차이에 따른 외국상표 선호 경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청소년 캐주얼 의류시장을 대상으로. 국민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차은정. (1998). 여고생의 라이프스타일, 상표 및 광고 이미지, 광고표현형식이 브랜드 선호에 미치는 영향. 배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차진희. (1994). *Body image, genderlogy, 의복 성 정체감 사이의 상관관계 연구: 대전, 충남북 지역의 남녀 대학생 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정희. (1991). *여고생의 의복 흥미도에 관한 조사연구*.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한국청소년개발원. (2000). *청소년의 신체적 자아상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 00-R10.
- Cash, T. F. (1990). The Multidimensional Body-Self Relations Questionnaire, in Thompson, J. K. (1990). *Body image disturbance*, New York: Pergamon Press.
- Cash, T. F., Winstead, B. A., & Janda, L. H. (1986). The great American shape-up: Body image survey report. *Psychology Today*, 20(4), 30-37.
- Engel, J. F., Blackwell, R. D., & Miniard, P. W. (1990). *Consumer behavior* (6th ed.). Chicago: The Dryden Press.
- Humphrey, C., Klaasen, M., & Creekmore, A. M. (1971). Clothing and self-concept of adolescents. *Journal of Home Economics*, 63(4), 246-250.
- Jacobi, L., & Cash, T. F. (1994). In pursuit of the perfect appearance: Discrepancies among self-ideal percept of multiple physical attribute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4(5), 379-396.
- Kim, J., & Lee, M. (1998). The Effects of Body Image, Body Satisfaction and Some Selected Dimensions of Clothing Behaviors of 3 Different Adolescent Age Group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Costume Culture*, 1(1), 1-13.
- Lazer, W. (1971). *Marketing management: A systems perspective*.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Inc.
- MacGillivray, M. S., & Wilson, J. D. (1997). Clothing and appearance among early, middle and late adolescent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5(1), 43-49.
- Plummer, J. T. (1974). The concept and application of life style segmentation. *Journal of Marketing*, 38, 33-37.
- Ryan, M. S. (1966). *Clothing: A study in human behavior*.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